

곡성군, 귀농귀촌 전원생활 체험 교육 실시

지난 3일간 도시민 9가구 18명 대상 2박3일간 진행 “막연했던 농촌생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곡성군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9가구 18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선배 귀농귀촌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을 견학해 최신 농업 기술과 농산물 가공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다. 이후 축산, 과수, 채소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가를 방문해 농사를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툇마방앗간을 탐방하며 지역 내 문화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체험교육을 마친 수강생들 A씨는 “2박 3일 동안 곡성의 푸근한 인심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느끼고 간다. 그저 막연했던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니 귀농귀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지역의 도시민들이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



도농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곡성군 귀농귀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 도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7월 입주

최종 입주자 추첨 완료...1차 50명 선정

화순군은 20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1차분 최종 입주자 50명이 선정돼 7월3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을 가진 결과 입주자선정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친 409명이 추첨에 참여해 50명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서류접수 신청자 506명 중 442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추첨 현장에는 409명이 참석해 8.2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민선 8기 구북구 군수의 청년을 위한 주거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자들은 1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했다.

화순군은 6월 말까지 입주 예정자와 전대차 계약을 마무리한 뒤 7월3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영주택도 현재 진행 중인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2차분 만원임대주택 50가구도 오는 8월 계획대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탈락했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2차 공모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쾌거... 본격 활동 전개

2007년 12월 이후 네 번째 재인증...주민 주도 슬로시티 목표

담양군은 국제슬로시티 연맹이 담양군의 슬로시티 재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돌담길, 고택의 에스프레소와 한과, 장류 등 전통 음식문

화의 보존 등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5년 주기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이번 6월 네 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군은 이에 발맞춰 슬

로시티 사무국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슬로시티 사무국은 지난 2월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에 맞는 슬로시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자원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주민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지난 12일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매니저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함께 슬로시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매력적인 슬로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병도 담양군수는 “앞으로 슬로시티 전담 팀을 구성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담양군의 정체성에 맞는 슬로시티 정책을 추진해 선도적인 슬로시티로 발돋움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대상포진 백신 파격 지원’ 나주시, 만65세 이상 모든 시민 예방접종 26일 개시

나주시가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격을 확 낮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본격 개시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만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민은 오는 26일부터 보건소,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3만8000원에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상포진 접종비용은 통상적으로 13~15만원(자기부담금100%)선이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비용 50%이상을 절감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접종한다. 단 나주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일반 시민은 주민등록초본, 사회적취약계층은 관련 증명서를 방문 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포진 기 접종자는 제외되며 대상포진 앓은 환자의 경우 회복 후 6~12개월 내 접종하면 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나주시, 세외수입 실무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2023년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법 숙련



나주시는 시청사 전산 교육장에서 분청 및 읍·면·동 세외수입 실무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2023년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외수입운영단 손영준 초청 강사는 세

외수입 개념과 기본지식,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시연, 실습 등 단계별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외수입 부과액 및 체납액 증가 추이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 징수 독려 활동, 체납처분 등 징수를 상충을 위한 실무자 역량도 강조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 재정 수입 중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 수입을 총괄하는 재원이다.

행정서비스 사용·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사업수입, 회계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입금 등 세외수입 항목은 2000여개에 달한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해 지자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꼽힌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업무 누수 방지 및 징수를 상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구례군, 야생화 생활원에 교육 개강...20명 참석

구례군은 지난 15일 압화체험교육관에서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화 생활원에 교육 개강식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시작된 생활원에 교육은 올해로 8기 교육생을 맞이했다. 올해 교육은 6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업은 △배양토 및 병해충 방제 △종자·꺾꽂이(삽목)번식 이론 및 분화 실습 △계절별 야생화 관리 △다육식물을 활용한 가정 원예(홀가드닝) △정원관리 미니 분경 등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이뤄진다.

구례=박진호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